

## 韓國史의 時代區分에 관한 小考

— 奴隸制 存·否論을 中心으로 —

保健行政科 陸 榮 冠\*  
講 師

### 目 次

- I. 序論—問題의 提起
- II. 奴隸制 論爭의 展開過程
  - 1. 白南雲說                      7. 朴時亨說
  - 2. 李清源說                      8. 前田直典說
  - 3. 金洸鎮說                      9. 崔虎鎮說
  - 4. 金錫亨說                      10. 趙璣濬說
  - 5. 李北滿說                      11. 金三守說
  - 6. 全錫淡說                      12. 最近의 代表의 學說
- III. 奴隸制 論爭의 兩 主流
  - 1. 奴隸制 否定論      2. 奴隸制 肯定論
- IV. 結論—綜合的 考察
- \*ABSTRACT
- \*參考文獻

### I. 序論—問題의 提起

紀元 前後의 수세기에 걸쳐 로마세계에는 耕作地·商店·作業場·官廳 등 도처에 奴隸(esclave)들이 存在하였다. 富裕한 者는 수백 또는 수천의 奴隸를 所有하고 있었던 反面, 한 명의 奴隸도 소유하지 못했던 이들은 極貧者였다고 해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紀元前 3세기에 들어서면서 로마의 奴隸制는 근본적인 變化를 겪으면서, 곧 土地所有者에게 高所得을 보장해 주려는 目的 아래 運營되었던 大農場에서 가장 重要한 勞動力으로 利用되었다. 그러나 어떤 微賤한 일이라 하더라도 奴隸勞動이 그 일을 모두 獨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상당한 넓이의 耕作지들이 主人의 所有物(posséder)이 아니었던 農民으로서의 小土地所有者와 借地農들에 의해 耕作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랍—로마社會의 社會經濟的 및 文化的 豊요로움은 奴隸勞動의 도움이 없이는 것처럼 高度의 水準으로까지는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제2차 포에니 전쟁(기원전 218~201) 기간중에 로마의 農業이

\* 全南大學校 大學院 經濟學博士過程

沒落했던 것은 단지 戰爭으로 인해 小農民層이 몰락했던 것에만 기인하는 현상이 아니라 奴隸의 不足때문에 초래된 현상이기도 하였다<sup>1</sup>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로마의 奴隸經濟가 얼마만큼이나 막대한 영향력을 가졌던가를 明白히 파악할 수 있다.

한편 古代로마법에 있어서의 奴隸制에 관해 알려주는 모든 자료들을 통해 가장 確實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奴隸와 外國人이라는 두 개의 概念이 서로 混同되어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당시의 노예제란 본질적으로 國際的인 身分體制였던 듯하다. 다시 말하면 이 時期의 奴隸란 바로 權利가 없는 外國人과 다름이 없었던 것이며, 곧 法律上的 觀點에서 보면 奴隸는 물론, 아니 동물이라 해도 좋을 그러한 存在였으나 실제로는 奴隸의 實態는 法律上的 身分과 전혀 一致하지 않았던 점도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sup>2</sup>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高句麗의 下戶와 같은 것도 이러한 範疇에 屬한 것인가? 이렇게 ‘奴隸’라는 概念은 거의 人類가 生存하기 始作하면서부터 存在해 왔으며 특히 農耕社會에서 勞動의 提供者로서 經濟와 不可分의 關係를 유지해 왔던 것이다. 또한 奴隸經濟의 根本的인 特徵은 生産手段의 所有者가 人間勞動의 產物을 자기의 것으로 專有하며 勞動하는 人間 그 自體를 買入하였던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奴隸의 存在는 또한 게르만민족에도 家內奴隸와 農業奴隸로서 存在하였던 反面에, 東方社會에서 奴隸制의 存在는 어떠한가? 특히 우리 韓國社會에서는 그것의 存在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리고 그에 對한 時代區分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區分되어야 할 것인가?

먼저, 時代區分이라 함은 곧 그것이 作業假說(working hypothesis) 또는 思考의 테두리(frame of reference)가 되는 데에 그 意義가 있으며 이러한 時代區分에는 本質적으로 첫째 어떠한 區分이든 모든 歷史의 時代區分은 人爲的이며 결코 最終적으로 決定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修正을 모면할 수 없다는 점과, 둘째, 어떤 종류의 分類에 따르든지 區分은 가능한 限 既知의 事實에 相應하도록 해야 한다는 制限이 있음은 既知의 事實이며 時代區分の 設定에는 반드시 歷史의 事實에 대한 精確한 判斷, 歷史의 事實의 內面的 統一性과 確實한 意味 및 信憑性이 전제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歷史의 發展을 體系的으로 認識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不得이 이러한 時代區分の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時代區分을 어떻게 處理하느냐 하는 것은 곧 歷史를 認識하는 態度 내지는 方法을 決定하여 준다고 할 수 있다. 韓國史는 예로부터 이러한 時代區分에 커다란 관심을 끌어 왔으며 20세기에 들어와 西洋의 歷史研究方法을 받아들이면서부터 갖가지 새로운 試圖가 行해져 오고 있다.

筆者는 本稿에서 종래의 韓國史時代區分論을 모두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多岐에

<sup>1</sup> Geschichte der Arbeit: vom Alten Ägypten bis zur Gegenwart Köln(Kiepenheuer & witsch: 1980). pp.70~83.

<sup>2</sup> 이 말은 기원전 37년 「農事論」(de re rustica)를 저술하였던 학자 Varro가 “노예란 농장에 속하는 말하는 도구(Inventar)”라고 규정지은 바 있으며 따라서 그는 목청을 부여받은 도구인 가축과 침묵하는 도구인 농기구와 함께 노예를 동렬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결친 論議를 빠짐없이 究明檢討하여 理論을 定立한다는 것은 감히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法則에 의해서 支配된 歷史는 자연히 여러 가지 時代區分을 可能케 한다. 한편 韓國史에 있어서 時代區分 문제를 가지고 歷史法則을 특수한 個別社會에 적용시켜 보면 奴隸制社會의 存在를 認定하느냐, 인정치 않느냐의 문제로 歸着된다. 이것은 奴隸制社會의 存·否에 따라서 時代區分을 決定하는 限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筆者는 本稿에서 特殊한 個別社會인 韓國史에 있어서의 奴隸制社會의 存·否문제를 中心으로 其間 展開된 諸 學說들을 간결히 정리해 보고 代表的인 學者의 主張에 따라 그 內容을 살펴보고 그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찾아내어 論議의 對象으로 삼고자 한다.

## II. 奴隸制 論爭의 展開過程

韓國史를 西洋의 研究方法을 도입하여 그것에 비추어 理解하고 認識하려는 努力과 試圖은 이미 解放前부터 이루어져 왔다. 그러한 努力과 試圖은 主로 社會經濟史 方向의 研究에 置重되어 왔는데 그중 가장 重要視된 문제중의 하나는 時代區分문제였다. 이러한 時代區分의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 奴隸制存否문제에 관한 열띤 論爭이 지난 40여년 동안 계속되어 왔는데 이를 제일 먼저 試圖한 분은 白南雲氏였다.<sup>3</sup> 韓國史에 있어서 社會構成體로서의 奴隸制社會를 認定하느냐, 認定치 않느냐의 문제는 1930年代에 白氏가 그것을 제기한 以後 수 많은 學者들에 의해 열띤 論爭이 전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정한 결론에 접근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른 것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자기의 주장과 이론을 밝히면서 論爭에 參與한 學者들의 主要學說들을 간추려 전개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 1. 白南雲說

白南雲氏는 1932년에 發刊된 “朝鮮社會經濟史”에서 統一新羅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農業生産이 主로 奴隸勞動에 依存한 것이라 하여 高句麗, 百濟, 新羅의 三國時代를 古代奴隸制社會라고 규정하고 新羅統一期 以後를 中世封建社會라고 규정하였다.<sup>4</sup>

### 2. 李清源說

李清源氏는 „朝鮮社會史讀本”(1936)에서 三國時代에서 高麗末까지를 奴隸制社會로 規定하고 씨족소유인 노예를 비롯해서 家內奴隸, 勞動奴隸를 區分하여 奴隸制社會의 發展카테고리로 認定하였으며 李朝時代를 中世封建制的 社會構成으로 보아 그 下限을 李朝末期로

<sup>3</sup> 白南雲, “조선사회경제사”, 1932. pp.354~357.

<sup>4</sup> 前掲書, p.356.

보고 있다.<sup>5</sup>

### 3. 金洸鎮說

金洸鎮氏は“高句麗社會の生産様式”이란 論文에서 奴隸制를 부정하고 광개토왕시까지는 奴隸制가 支配的인 形態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존재한 家內奴隸, 奢侈奴隸가 氏族制度를 완전히 구축할 수 없었다고 보고 있다. 이는 白南雲說을 부정하고 훨씬 後世代(8~9세기?)에 奴隸制社會를 設定하려 하였음을 意味하는 것이다.<sup>6</sup>

### 4. 金錫亨說

金錫亨氏は“三國の階級諸關係”라는 論文에서 三國時代에 先行한 古朝鮮·夫餘·辰國(馬韓)을 奴隸制社會라 規定하고, 三國이 先行社會의 生産力水準을 계승하여 原始共同體社會에서 바로 封建制社會로 移行했으며 이때 三國은 農奴와 封建的 隸屬人과 家父長的 奴隸가 竝存했던 社會라고 主張했다.<sup>7</sup>

### 5. 李北滿說

李北滿氏は“李朝社會經濟史 研究”에서 典型的으로 發展한 奴隸制와 朝鮮과 같이 奇型的으로 발전한 奴隸制와를 區別한다는 思考에 立脚하였다. 그는 家內奴隸制가 古典的 奴隸에 相應하지 못한 低段階的인 것으로 보고, 그 結果 家內奴隸制 自體가 古典的 奴隸制發展의 制限이 되었다고 主張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耕作근로에 있어서 奴隸勞動이 重要な 役割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奴隸制가 成立되었다고 規定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李氏는 奴隸制的인 社會構成은 三國時代부터 統一新羅期에 이르기까지 存續하였다고 해석하였다.<sup>8</sup>

### 6. 全錫淡說

全錫淡氏は“李朝農民經濟史”(李朝社會經濟史)라는 論文에서 李北滿說을 批判하고 나아가서 白南雲氏의 奴隸制肯定說에도 對立하여 “경작노예에 관하여는 아무런 문헌도 가지지 못했고, 따라서 경작노동에서 노예노동의 우세가 確立되지 않았으며 國家財政의 唯一한 基礎는 租稅였으므로 奴隸의 收取형태로서 租稅란 것이 있을 리 없고 이것은 高句麗의 支配的 形態가 一般農民의 耕作勞動이었던 것을 立證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 “朝鮮經

<sup>5</sup> 姜晉哲, “韓國史의 時代區分에 관한 一試論”, 진단학보, 제29. 30권, 진단학회, 1966. pp.177~179.

<sup>6</sup> 金洸鎮, “고구려 사회의 생산양식”, 진단학회논문집, 3집, 서울, 1937. pp.7~18.

<sup>7</sup> 木村誠, “朝鮮前近代의 時代區分”, 新朝鮮史入門, 龍溪書舍, 1981. pp33~34.

<sup>8</sup> 同書, pp.22~31. 여기서 그는 고구려의 하호와 같은 신분적으로는 아니지만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공납노예의 개념을 내세웠다.

濟史”에서 朝鮮經濟社會의 發展過程은 엄밀한 意味에서의 奴隸制社會란 存在하지 않았다고 보고 그 經濟的 發展樣式을 ‘原始共產社會=封建社會’의 範疇에 넣음으로써 奴隸制社會 存在自體를 부인하고 말았다.<sup>9</sup>

### 7. 朴時亨說

朴時亨氏は “朝鮮土地制度史”에서 高句麗·百濟는 古代奴隸制的인 社會構成을 經由하였으나 新羅만은 이것을 經由치 아니하고 原始共同體社會에서 곧바로 封建制的인 社會構成으로 飛躍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는 三國時代의 社會構成은 三國이 제각기 固有의 過程을 거쳤다고 이해하였던 것이다.<sup>10</sup>

### 8. 前田直典說

前田氏は “東ろじろに於ける古代の終末—中國史の時代區分”에서 三國時代 以來 高麗中期의 武臣執權까지를 古代奴隸制的 社會構成으로 보고 高麗中期 以後부터는 中世封建的인 社會構成으로 理解하려는 見解이다.<sup>11</sup>

### 9. 崔虎鎮說

崔虎鎮氏は 그의 著書, “韓國經濟史概說”에서 우리나라에서는 奴隸勞動이 生産의 一般的 形態가 되지 못하였고 古典古代的인 勞動奴隸制度가 발달하지 않았다고 認識하면서도 奴隸를 中心으로 하는 認識下에서 三國時代는 農民이나 土地에 對한 支配體制가 아닌 ‘共同體的 集團支配體制’였다고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이 時期를 ‘전반적 예종제사회’(또는 東洋의 古代社會)로 규정하였던 것이다.<sup>12</sup>

### 10. 趙璣濬說

趙璣濬氏は 그의 著書 “韓國經濟史”에서 白南雲氏의 奴隸制肯定說에 正面으로 對立하여 奴隸制否定說을 展開하고 있는데 趙教授는 韓國史에 있어서의 古代的인 社會構成의 存在는 認定하면서도 그것을 奴隸制的인 것과 同一視하는 것을 거부하고 古代的인 社會構成은 存在하였으나 그것은 奴隸制的인 社會構成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라고 力說하였다.

<sup>9</sup> 즉 조세=지대의 수취가 국가재정의 근원이 되는 것은 봉건제적 사회구성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sup>10</sup> 新朝鮮史入門, 朝鮮史研究會, 龍溪書舍刊, 1981. pp.15~27.

<sup>11</sup> 그러나 그는 여기서 중세봉건제적인 사회구성의 하한을 밝히고 있지 않다.

<sup>12</sup> 여기서 전반적 예종제란 곧 종체적 노예제를 의미하며, 吉田晶도 “조선고려사의 시대구분”, 삼성당 간, 1979. pp.15~35에서 통일신라의 농경공동체적 기초를 종체적 노예제라고 밝히고 있다.

### 11. 金三守說

金三守氏は“韓國社會經濟史”에서 奴隸制社會를 認定하는 점에서는 白氏와 같으나 奴隸制社會의 上限과 下限, 奴隸制의 概念 등에서는 白氏와 많은 差異를 보여주고 있다. 古朝鮮이나 三韓·夫餘를 白氏は 原始社會로 보고 있는데 대하여 金教授는 이를 奴隸制社會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白氏가 奴隸制社會로 보는 三國時代는 金教授는 封建社會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12. 最近의 代表的 學說

最近에도 韓國의 많은 학자들이 韓國史에 있어서 奴隸制存否論爭에 參加하고 있는데 그 代表的인 例로 金柄夏, 姜晉哲教授 등을 들어 볼 수 있겠다. 이분들은 奴隸制論爭에 관한 理論展開의 모순점과 문제점 등을 밝혀주고 있는데, 姜晉哲教授는 自己 나름대로 時代區分에 관해 약간 색다른 견해를 明白히 제시해 주고 있다. 姜教授는 “韓國史 時代區分에 關한 一試論”(震檀學報 29, 30 合竝號, 1966)에서 三國時代 以來 高麗中期의 武臣執權期까지가 古代奴隸의인 社會構成이며, 武臣執權期 以後 高麗末期에 이르는 期間이 古代奴隸의인 社會構成이 中世封建的인 社會構成으로 넘어가는 過渡期的인 轉換期였고, 李朝時代를 中世封建的 社會構成의 時期였다고 보고 있다. 그는 高句麗의 下戶나 新羅의 部曲民 또는 百濟에 있어서도 그와 유사하면서도 支配層인 王室貴族과 被支配層인 人民一般과는 種族的으로 달랐던 만큼 그 隸屬度가 더 強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特殊한 隸屬民의 存在를 想定하여 古代奴隸制的인 社會構成의 存在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이들 諸 學說을 圖表化해 보면 表 1과 같다.

## Ⅲ. 奴隸制 論爭의 二 主流

지금까지 考察한 바와 같이 韓國史에 있어서 奴隸制社會에 관한 見解는 학자마다 서로 달라 統一을 이루지 못하고 커다란 混亂상태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이유는 學者마다의 研究水準에 關係되는 문제라기 보다는 時代區分을 設定하는 視角과 見解에 큰 差異가 있고 문제를 設定하는 기준에 큰 間격이 있기 때문이다. 奴隸制社會를 보는 見解에 있어서도 奴隸制社會에 對한 概念이 다르고 그 理解方式이 달라 肯定論과 否定論으로 갈라지고 肯定論中에서도 視角과 見解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事實에 問題의 視角을 集中시키고 왜 이처럼 學者마다의 視角과 見解에 차이가 극심한가? 또 그러한 문제의 所在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否定論과 肯定論으로 나누어 더 考察해 보기로 하자.

最近 否定論의 代表的 學者는 趙璣濟教授로, 肯定論의 代表的 學者는 金三守教授로 일반

表 1. 韓國史 時代區分 一覽表

연대 학자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2200									
	저서(논문)	삼국시대	통일신라	부신점령기	고구려	조	신			
金三守	韓國文化史大系II (韓國社會經濟史) 부여, 삼한 고대노예제									
金錫亨	歷史科學 (三國의階級諸關係) 고조선, 부여, 진국 고대노예제									
全錫淡	本朝農民經濟史, 朝鮮經濟史 노예제 존재 부인 원시공동체									
白南雲	朝鮮社會經濟史 朝鮮封建社會經濟史 고대노예제	중	세	세	봉	진	제			
崔虎鎮	동양적고대사회 (노예제 존재 부인) 韓國經濟史概說 (진한적에중세사회)	중	세	세	봉	진	제			
朴時亨	朝鮮土地制度史 고구려·백제=고대노예제 신라=원시공동체	중	세	세	봉	진	제			
李北滿	李朝社會經濟史研究 (가대노예제와고진적노예제구분)				중	세	봉	진	제	
林光徹	朝鮮歷史讀本				중	세	봉	진	제	
趙瓊璿	韓國經濟史				중	세	봉	진	제	
姜晉哲	韓國史의 時代區分 에 관한 一試論 고대적사회구조성 존재 인정 노예제 존재 부인				중	세	봉	진	제	
李淸源	朝鮮社會史讀本				중	세	봉	진	제	
前田直典	中國史の時代區分				중	세	봉	진	제	
金洸鎭	高句麗社會の 生産様式 奴隸制存在 부정?				중	세	봉	진	제	

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 1. 奴隸制否定論

白南雲氏의 奴隸制肯定論에 對하여는 그 方法論上의 缺陷<sup>15</sup>에 對해 이미 여러 論者들에 의해 세찬 비판을 받아 왔지만, 이와 관련된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趙璣濬教授의 “韓國經濟史”가 있다. 趙教授는 同著書에서 社會經濟發展의 契期的 段階로서 奴隸制社會의 存在를 否定하고, “우리 古代社會의 生産樣式 即 農業 및 手工業의 經濟樣式에는 奴隸的 經營이 한 時代의 支配的인 樣式으로 나타난 일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奴隸制社會의 存在를 主張하는 背後에는 多분히 다른 의도가 介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即 “그 하나는 막스사관에 대한 새로운 解釋 곧 共同體理念을 韓國史에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우리 民族史에 있어서의 階級鬭爭을 鮮明히 그려냄으로써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봉사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통렬히 그를 비난하고 이어서 그는 奴隸制社會의 否定論을 다음과 같은 理論的 根據를 들어 展開하고 있는 것이다. 即 “우리 三國時代나 新羅 및 高麗時代에도 身分的인 概念에서의 奴隸는 多數 存在하였다. 그들의 많은 부분은 가정노예였음은 사실이나 가정노예가 아니고 直接生産過程에 投入된 奴隸도 수적으로는 적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生産過程에 投入된 身分的인 奴隸가 바로 經濟的 意味의 奴隸는 아닌 것이다. 身分的으로는 奴隸라 하더라도 그들이 生産關係에 어떠한 양식으로 投入되었던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만일 이들 노예가 자기 經營分을 갖지 않고 土地所有者에게 납부한다고 하면 그들은 이미 경제적 의미의 奴隸는 아닌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三國時代 및 그 後의 新羅 或은 高麗時代에 있어서도 奴隸의 勞動給付양식이 支配的인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奴隸社會를 우리의 歷史發展段階에서 認定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趙教授는 이처럼 三國의 奴隸社會를 認定하지 않으나 ‘三國의 獨自的 時代性格’은 肯定하고 있는 것이다. 全錫淡氏도 역시 奴隸制社會를 否定하고 原始社會로부터 封建社會로 移行했다고 主張하고 있다. 趙교수는 奴隸制社會否定에 있어서는 全氏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나 古代의 獨自的 性格에 있어서는 相反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즉 全氏는 三國의 獨自的 性格을 否定함으로써 三國을 高麗나 李朝와 같은 時代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그 特徵이라고 볼 수 있다.

### 2. 奴隸制 肯定論

全氏나 趙教授가 奴隸制社會를 否定하는데 反하여 最近에 奴隸制肯定論을 提示한 사람은 金三守教授라고 여겨진다. 金教授는 韓國에 있어서의 原始社會의 存在를 적어도 紀元前 8~12세기 이전으로 소급해야 한다고 보며 2~3세기까지를 奴隸制社會로 보고 封建社會는 2~3세기 이후에 成立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奴隸制를 肯定하든 否定하든, 三韓, 夫餘社會를 原始社會가 아니라고 본 것은 特徵的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체로 金教授가 奴



隸制를 認定하는 理論的 根據는 다음과 같이 展開된다. 卽 金教授는 무엇보다도 “동방적 노예제=가내노예제”를 인정함으로써 奴隸概念이 오로지 古典의 奴隸에 묶였던 과거 論爭의 테두리를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한 동방적 노예제는 곧 막스 베버가 인정한 바와 같이 가내노예제 또는 가부장적 노예제 자체가 古典的 奴隸制와 같이 생산적 기초를 가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고 奴隸制의 時代가 韓國史上 三國時代가 아니라 三國 以前의 時代에 있어서 그 肯定과 否定이 認識되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夫餘, 三韓의 社會經濟를 論하면서 그것들이 韓國奴隸制社會에 있어서의 상이한 段階를 意味한 것으로 보고 그 時代區分을 試圖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金교수는 막스 베버가 “古代에 있어서의 농업제관계”라는 논문에서 奴隸制의 基本形態의 하나로 古典的 奴隸制 이외에 동방에서의 家父長的 奴隸制를 지적한 바를 상기시키면서 막스 베버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다음과 같은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고 論述하고 있다.

즉, 첫째, 家部長的(=古典的) 奴隸制는 奴隸制의 基本形態의 하나이다. 둘째, 家父長的 奴隸制가 最大의 可能한 착취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착취관계의 存在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夫餘의 下戶와 같이 신분적으로는 自由民이나 경제적 처지가 착취 관계에 있어서는 틀림없는 奴隸로 되어 있는 것도 그런 뜻의 하나일 것이다. 셋째, 家父長的 奴隸制의 어느 경우에 奴隸가 貢納을 제공하였다는 것은 결코 그것이 본질적으로 生産의 基礎를 喪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서 地代(=Renten)의 원천이 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家父長的 奴隸制가 封建社會로 넘어가는 可能性을 이미 포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貢納奴隸만이 동방적 노예제의 본질인 것처럼 말한다면 그것은 科學的 奴隸概念을 歪曲한 것이라고 본다. 貢納自體는 家父長的 奴隸制에서의 一派生形態이며 실제로 封建社會에 있어서 地代의 원천으로서의 貢納奴隸가 있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論理的 根據에 의해서 金教授는 奴隸制 肯定說을 펴고 있다는 점에서는 白南雲氏와 같은 見解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奴隸制社會의 上限과 下限, 奴隸의 概念 등에 대하여는 白氏와 많은 差異를 보여주고 있다. 古朝鮮이나 三韓, 夫餘社會를 白氏는 원시사회로 보고 있음에 대하여 金教授는 奴隸制社會로 規定하고 있다. 여기에 對해서는 앞으로 더 더욱 더 考察해 보아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IV. 結論—綜合的 考察

지금까지 고찰한 바와 같이 韓國史에 있어서 奴隸制存·否에 關한 문제는 學者마다 그 視角과 見解를 달리함을 알았다. 그것은 韓國史의 研究에 있어 아직도 具體的인 사실이 실증적으로 解明되지 못한 분야가 많을 뿐 아니라 설명 어느정도 해명된 것이라 해도 그러한 사실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肯定說과 否定說로 갈라지고 兩說 역시 저마다 時代區分에 있어서 큰 差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던 우리나라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 어떠한 기준, 어떠한 視角때문에 이같은 상반된 見解가 속출하고 있는 것인가? 이처럼 混迷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문제의 核心은 과연 무엇일까? 時代區分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그 限界線을 그을 것인가 하는 복잡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노예제를 認定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정리되어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諸學者들이 韓國史에 있어서 奴隸制問題를 다룬 研究論文 또는 著書 등에 걸쳐 살펴 본 결과 筆者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學者들이 視角과 생각하는 기준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 奴隸의 概念을 古典古代社會의 圖式에 限定시키느냐? 아니면 擴大認識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앞서서도 살펴본 것처럼 원래 奴隸는 그의 소유주에 의해서 生殺與奪이 可能할 정도로 ‘完全히 人格이 否認된 人間’ ‘生命을 가진 도구’ ‘말을 하는 도구’와 같이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개념에 合致하는 奴隸가 社會的 生産을 직접 담당하여 그들의 勞動에 의한 生産이 社會的 生産의 支配的 形態를 이루었을 경우만을 상정하고 이러한 生産樣式에 입각하는 社會를 古代奴隸制的인 社會라고 보았을때 이러한 理解方式은 典型的인 奴隸社會인 그리스, 로마의 古典古代社會를 표본삼아 그린 圖式이다. 이렇게 古典古代的인 圖式에 限定시켜 본다면, 그러한 奴隸가 우리나라에서 社會的 生産의 支配的인 形態를 이룬 과정이 없었으므로 奴隸制社會는 否定될 수 있다. 奴隸制社會의 肯定可能性은 奴隸의 概念을 擴大認識했을 경우만이 可能한 일이다.

둘째, 그러면 奴隸概念을 擴大認識했을 경우 ‘동방적 노예제=가내노예제’를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이다. 金三守教授는 ‘동방적 노예제=가내노예제’를 인정함으로써 奴隸概念을 오로지 古典的 奴隸에 묶었던 過去の 論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동방적 노예제와 가내노예제는 同一視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金柄夏교수는 “家內奴隸制란 家内の 雜務에 使役되는 奴隸로서 勞動奴隸에 對한 概念이며 이는 家父長的 奴隸制에 限하는 것은 아니고 로마공화국 말기에 富裕한 市民의 大家計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동방노예제와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金교수는 동방적 노예에 대해서 그 性格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 하나는 奴隸的 側面的 性質을 지니고 있고, 다른 하나는 農奴的 側面的 性質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즉 노비중에서도 率居奴婢는 家內奴隸나 家父長的 奴隸로 볼 수 있으나 불완전소유자인 外居奴婢는 農奴의 範疇에 넣어야 옳다고 보고 있다. 奴隸概念을 擴大하여 農奴까지도 奴隸의 範疇에 포함시킨다면 高麗時代나 李朝도 奴隸制社會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이렇게 보면 “동방적 노예제=가내노예제”를 인정한다는 사실이 모순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는 더욱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奴隸概念을 擴大認識했을 경우 아시아적인 奴隸制 即, 總體的 奴隸制(=全般的 隸從制)理論이 우리나라의 奴隸制 解釋에 모순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이다. 崔虎鎮교수

는 “삼국시대의 奴隸는 일반적으로 家事奴隸 내지 奢侈奴隸의 性格을 강하게 띠우고 있으며 生産勞動에는 支配的인 役割을 擔當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도 “農民이나 土地의 支配形式으로 보아 三國時代에는 共同體의 集團支配體制였으므로 總體的 奴隸制社會”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姜晉哲教授 역시 ‘국왕과 그에 기생하는 귀족관료’를 제외하고는 特殊隸屬民을 포함한 人民一般을 總體的으로 奴隸的인 存在로 이해하여 ‘아시아적 노예제=總體的 奴隸制’의 理論을 肯定하고 이에 근거하여 時期를 구분하고 있다. 勿論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사회의 노예제는 ‘奴隸’에 대한 身分的, 法制的 解釋이 아니라 社會的, 經濟的 解釋에 立脚하여 說明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角度에서 본다면 해당사회의 支配的인 生産을 담당하는 農民도 그 位置가 國家에 勞動力을 수탈당하여 奴隸的인 存在일 경우에는 그 社會는 奴隸的인 社會構成으로 볼 수도 있다고 假定할 때에는 이러한 總體的 奴隸制理論은 전혀 무시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解釋이 과연 타당한 論理的 解釋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는 약간의 무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總體的 奴隸制社會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認定한다고 할 때에 이것은 막스사관에 대한 새로운 해석 즉 共同體理論을 認定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共同體理論을 韓國史에 끼워 넣으려는 試圖이며, 우리 民族史에 階級鬭爭을 鮮明하게 그려내어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奉仕하는 커다란 오류에 빠지게 될 危險이 內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總體的 奴隸制社會의 理論은 보다 說得力있고 信憑性있는 理論的 根據를 모색해야 하겠다.

結論적으로 韓國史의 時代區分은 韓國史의 理解 뿐 아니라 世界史의 理解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만 그 참된 意義가 살려지는 것이다. 따라서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우리 한국사의 아쉬운 현실앞에서 좀 더 차원높은 연구를 통한 韓國史의 認識을 이룩해야 하겠다.

### 參 考 文 獻

1. 金三守, “韓國社會經濟史”, 韓國文化史大系Ⅱ, 高大民族文化研究所 刊, 1981.
2. 金洸鎭, “高句麗社會의 生産樣式”, 震檀學會論集, 서울, 1937.
3. 金錫亨, “三國의階級諸關係”, 歷史科學 四號, 1959.
4. 金錫亨·鄭燦永, “我國의 奴隸所有者社會의特性と封建社會의成立”, 歷史科學 二號付錄, 1960.
5. 金柄夏, “韓國의 奴隸制社會問題”, 韓國經濟史學會.
6. 李基白, “韓國史의 時代區分問題”, 韓國史研究入門, 韓國史研究會 編, 知識產業社, 1983.
7. 韓祐勳, 韓國通史, 乙酉文化社, 1981.
8. 姜晉哲, “韓國史의 時代區分에 관한 一試論”, 震檀學報 29. 30 合竝號, 1966.
9. 木村誠, “朝鮮前近代의 時代區分”, 新 朝鮮史入門, 朝鮮史研究會, 龍溪書舍 刊, 1981.
10. 梁秉祐, “時代와 時代區分”, 歷史學報 第37輯, 1968.
11. 趙璣璿, “韓國經濟史”, 일신사, 1981.
12. 崔虎鎭, “韓國經濟史”, 박영사, 1980.
13. 韓貞淑 譯, 펠무트 쉬나이더 外, “勞動의 歷史”, 한길사, 1982.

14. 前田直典 “東アジイにおける古代の終末”，中國史の時代區分，東大出版會，1957.
  15. “西洋古典古代經濟斗 奴隸制”，高麗大學校 大學院 西洋古代史研究室，法文社 社，1981.
- Geschichte der Arbeit: vom Alten Ägypten bis zur Gegenwart (köln kiepenheuer & witsch: 1980)
- M. Bloch, “Comment et Pourquoi Finit L'esclavage Antique,” in *Slavery in Classical Antiquity*, ed. by M. I. Finley (Heffer/Cambridge, rep. 1964).

**A Study on the Periodization in Korean history**  
 —centering on the problem of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slavery in Korean history—

Mog Young Quwan

> *Abstract* <

Anyone who tries to recognize the development of history systematically can not help but encounter the problem of periodization. And then it gives us the attitude or the way to realize history.

Historians have paid attention to the problem of periodization in Korean history long time ago and have made many sorts of attempts since they adopted the western approaches of researching history in twentieth century.

In a way, when trying to apply historical laws to the problem of periodization in Korean history, a special individual society, naturally follows the problem, whether we should admit the existence of slavery in Korean history or not, for the boundaries of periodization only depends on it.

So the present writer purports to arrange all the contents of theories of every historians compactly by surveying and to discuss several problems found during this study according to the arguments of the representative scholars.

There seem to be two main streams of arguments about the existence of slavery in Korean history in this discussion. One is the argument to deny the existence of slavery in Korean history; The other is the argument to affirm it. The present writer surveyed the process of such arguments throughout this paper.

Now several conclusions reached are as follows:

First, the problem occurs whether we should include the concept of slave in the diagram of the classical, ancient society or exclude it. If we include it, we can deny the existence of the slavery because of no systematical evidence about it which plays a dominant role in social productions in Korean history.

Second, then admitting that we recognized the extended concept of slavery the problem occurs whether we should recognize Oriental slavery and Domestic slavery as equal. In this case we should examine continuously whether it is contradictory or not in this recognition

Finally, accepting the extended concept of slavery the problem occurs whether there is contradiction or not in interpreting the slavery of Korea under the premise that Asian slavery is identical with general slavery. The theory of general slavery needs to suggest more convincing theoretical grounds.

In conclusion we should realize the present hard occasions of Korean history caused by the differences of views and criteria of many scholars and then establish the atmosphere to study from new dimension.